

마을 재앙담에 나타난 풍수사상

심민호*

<차례>

1. 서론
2. 풍수적 해석이 부여된 마을 재앙담의 사례
3. 마을 재앙과 민중의 풍수적 대응
4. 마을 재앙담에 나타난 풍수사상의 의의
5. 결론

<국문초록>

공동체의 관심사는 이야깃거리가 되기 마련이다. 마을에 다가온 재앙은 마을 공동체의 중요한 관심거리가 되고, 인구에 회자되기 마련이다. 마을 재앙담은 마을 공동체의 운명에 영향을 주는 재앙의 발생과 대응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러한 재앙에 대해 마을 공동체 구성원이 풍수적 환경변화 혹은 열악한 풍수적 환경을 마을 재앙의 원인으로 꼽는 사례가 많다.

환경의 변화로 인한 마을의 재앙 이야기가 자연의 개발 혹은 파괴로 풍수적 환경이 변화되어 재앙이 발생한 반면,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마을의 재앙 이야기는 풍수적 환경의 변화가 없는 속에서 발생한 재앙의 원인으로 마을의 풍수적 환경이 좋지 않았었다고 마을 주민들이 생각하게 된 사례담이 주를 이루게 된다.

환경의 변화로 인한 마을 재앙담은 제각기 돌산 개발, 도로 공사, 깨진 바위, 다리 건설 등 개발의 논리에 의한 환경 변화가 불행을 초래하게 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러한 풍수적 환경변화는 명당 국세에 형성된 기의 흐름을 바꾸게 되어 대체로 나쁘게 작용하게 된다.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풍수적 환경의 변화로 인한 재앙담의 경우 재앙이 발생한 원인을 풍수에서 찾게 된다. 그러나 악의적인 환경 파괴로 인한 재앙은 풍수적 환경 변화를 염두에 두고 파괴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열

* 충남대학교

악한 환경으로 인한 마을 재앙담은 환경의 변화로 인한 마을 재앙담 사례에 비해 재앙의 강도가 약하고 집단이기 보다는 마을 공동체 구성원들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두 사례 모두 마을 재앙의 원인을 풍수에서 찾고 있다.

보통의 풍수담은 개인의 발복에 관심을 갖기 마련이나 마을 재앙담에서의 풍수 지리설은 개인의 발복 보다는 집단의 안위에 관심을 두게 된다. 마을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직면한 재앙을 극복하는 방편으로 풍수지리설이 활용되는 것이다. 마을 재앙담에서는 공동체 앞에 당면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 행복한 현실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집단의 소망이 담기게 된다. 이처럼 마을 공동체에게 있어 풍수는 마을 재앙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마을의 재앙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도 한다.

주제어 풍수지리, 재앙, 설화, 명당, 환경 파괴, 마을 공동체

1. 서론

설화 전승 집단이 공동의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야기일수록 설화의 확산과 변이가 활발할 것이다. 설화가 전승되는 집단은 공동체라는 단위로 묶여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집단은 가정, 마을, 사회, 직업군에 따라 다양한 층위를 보여준다. 설화는 이러한 공동체의 층위에 따라 가문 전설, 마을 전설, 건국 신화 등의 양상을 보이며 공동체의 흥미와 관심 속에서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 중 마을 공동체가 관심을 갖는 이야기는 마을 유래담, 구전 마을사, 마을 인물담, 지명군 전설 등일 것이다.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이야기는 마을 공동체의 관심사 중의 하나인 재앙담에 있다.

마을 재앙담은 마을 유래담의 일부일 수도 있고, 구전 마을사의 일부일 수도 있다. 또 지명군 전설의 일부를 구성할 수도 있고, 마을 인물에 관한

이야기도 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마을 재앙담을 하나의 유형으로 설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설화는 크게 신화, 전설, 민담으로 분류된다. 개별 설화 작품을 이러한 대분류에 의해 나누는 것도 애매한 상황이 많다. 하물며 이보다 작은 하위 단위를 설정하여 설화의 유형을 분류하는 것은 자칫 이야기가 가지는 다양한 속성을 거세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마을 재앙담을 상위분류에 귀속시키거나, 하위분류로 나누기 보다는 마을의 재앙에 관한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풍수적 속성을 살펴보는 정도로 할 것이다.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마을 재앙담에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다. 마을 재앙담은 앞서 제시한 유래설명, 역사구술, 인물전기 등의 속성을 지님과 동시에 무속, 풍수지리, 민간신앙 등 사상적 속성도 겸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혜담, 예지담 등 다양한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마을 재앙담이다. 마을 재앙담의 여러 속성은 개별 이야기에서 한 가지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속성이 서로 얽히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마을 재앙담이 지니는 여러 속성 중 풍수지리설이 나타난 이야기를 중심으로 마을 공동체를 이루는 집단이 갖는 환경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2. 풍수적 해석이 부여된 마을 재앙담의 사례¹⁾

마을 재앙담은 마을 공동체의 운명과 관련이 있다. 마을의 재앙은 마을 공동체 구성원 개인에게 나타나는 작은 사고나 질병에서부터 마을 주민의 집단 사망 사태에 이르는 돌림병이나 자연재해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와 피해 범위도 다양하다. 이러한 마을의 재앙은 여러 원인에 의해 도래

1) 본고에서 '사례'는 "마을 재앙담이 이야기되는 사례"라는 뜻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하게 된다. 그러나 마을 공동체 구성원이 풍수적 환경변화 혹은 열악한 풍수적 환경을 마을 재앙의 원인으로 꼽는 사례가 많다. 실제 마을 재앙의 원인이 풍수와 관련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풍수지리에 의해 마을 재앙의 원인을 진단하는 사례를 두 부류로 나누어 살펴보면 '환경의 변화로 인한 마을의 재앙'과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마을의 재앙'으로 할 수 있다.

1) 환경의 변화로 인한 마을의 재앙

마을 공동체가 가장 큰 재앙으로 느끼는 것은 사람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 과정을 겪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고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으며,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삶의 의지를 갖는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속담은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인류의 생사관을 표현한다고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 원하지도 않고 뜻하지도 않는 죽음은 이러한 인간의 생존 욕망에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재앙이다. <사례1-1>은 환경의 변화로 인해 나타난 죽음의 재앙 사례담이다.

<사례1-1>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덕곡마을

1996년. 동네 사람들 말로 지금까지 별스럽게 잘난 사람도 없었지만 삼성밭이(김, 이, 추)가 비등비등하게 서로 사이좋게 살았던 마을이다.

그런데 10여 년 전 어느 외지인이 '닭 키우고 염소 키운다'고 하여 동네 사람들은 그에게 땅을 팔았다. 그런데 외지인은 가축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석산 개발을 시작했다. 우연인지는 몰라도 그 뒤 동네에는 여러 가지 불행이 닥쳤다. 동네 남자들이 줄초상을 치르듯 죽어나갔다. 뿐만 아니라 외지에 나간 사람조차 잇기도 전에 죽어 돌아왔다. 어느 집안은 사형제가 모두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이런 불행이 계속되자 동네 사람들은 이 일들이 바로 동네 뒤의 석산 개발 때문이라고 믿었다.²⁾

덕곡마을에는 동네 남자들이 죽는 재앙이 다가온다. 재앙의 대상이 남성인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다만 마을 사람들이 연이어 죽는 사건을 부각시키기 위한 표현의 느낌을 보다 강하게 전달하기 위해 특정한 성을 선택한 것이다. 마을에서 줄초상을 치른다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다. 마을 공동체의 구성원은 그들 공동체 내부에 발생한 정상적이지 않은 사건의 발생원인에 관심을 갖게 된다. 그리고 마을의 석산 개발을 마을의 불행에 대한 원인으로 설정하게 된다. 보통 사람의 가치관으로는 마을의 산을 개발하는 것과 사람이 죽는 것은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 산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작업장 인부가 사망하는 사례가 아니라면, 단순히 산을 개발한다고 해서 사람이 죽을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덕곡마을 공동체 구성원은 마을 남자가 연달아 죽는 사건을 마을 석산의 개발과 관련시키고 있다.

풍수지리설에서는 자연을 살아있는 생명체로 바라본다. 덕곡마을 공동체 구성원들이 마을 재앙의 원인으로 지목한 석산개발은 풍수지리설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는 풍수 환경을 파괴한 것으로 해석된다. 풍수지리설의 관점에서 본 석산개발은 덕곡마을의 풍수 환경을 해치는 유해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사례1-2〉 전라북도 진안군 주천면 용덕리 (산제, 대촌, 도촌 등 3개 마을)

1993년 진안 주천면 용덕리에서 금산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생겼다. 도로를 내는 과정에서 고개가 깎이고 맥이 잘렸다. 또 고개에서 있던 큰 정자나무를 베어 없앴다. 공교롭게도 그 후 마을에 재난이 생기기 시작했다. 특히 3개 마을의 이장 아들을 비롯하여 객지로 나간 젊은이들이 죽어나가는 등 마을이 어수선했다. 이러한 잇달은 재앙을 막기 위해 1996년 7월 마을 사

2) 김두규, 『우리 땅 우리 풍수』, 동학사, 1998. 41쪽

람들이 모여 그 고개에 돌탑 2기를 세웠다.³⁾

iTV(경인방송)의 '다큐멘터리 위험한 초대'에 방송되기도 했던 진안군 주천면의 재앙담은 <사례1-1>과는 달리 재앙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보여주고 있다. 마을 공동체 구성원들은 무분별한 난개발로 훼손된 자연이 내리는 재앙에 수동적으로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재앙에 맞서 싸우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용덕리 주민들에게 계속된 젊은이의 죽음은 마을의 미래와 자신의 자녀와 관련이 있는 문제로 마을 공동체의 최대 관심사가 될 것이다. 역시 마을에서 연달아 나이 든 사람이 죽거나 젊은 사람이 죽는 상황은 불행한 것이다. 그런데 젊은 사람이 연달아 죽는다는 상황 설정은 마을의 미래가 걸려있는 재앙이라는 위기감을 고조시킨다.

마을 젊은이들이 죽는 이유를 단맥이라는 풍수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이에 대한 대처도 풍수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사례1-1>이 '파괴→재앙'의 구조로 단순히 산을 파괴한 벌을 받는데 그치고 있다면, <사례1-2>는 '파괴→재앙→비보/압승'의 구조로 재앙을 해결하고 있다. 재앙의 발생원인과 재앙의 해소 방법이 모두 풍수지리설에 근거하고 있다.

여기에서 재앙의 해소 방법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고개를 깎고 도로를 만들어 기가 흩어지게 된 형국에 돌탑을 세우는 것으로 비보를 하고 있다. 돌탑의 규모가 깎여나간 고개나 산의 높이만큼 커서 바람을 갈무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의 비보는 다분히 상징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역민, 마을 공동체 구성원에게 심리적 안정을 찾아 줄 수 있는 장치가 될 수는 있어도, 실제 풍수지리의 고통을 좌우할 만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마을 공동체가 조탑 과정에서 비보를 할 수 있다고

3) 김두규, 『우리 땅 우리 풍수』, 동학사, 1998. 83-84쪽

믿고, 실제 조탑 이후 재앙이 사라졌다는 점이 중요하다.

〈사례1-3〉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중촌리 코끼리 석상

1990년대 초 저승사자는 2년 동안 무려 30여명의 마을사람을 저세상으로 데려갔다. 200여명에 불과한 마을 인구 가운데 30명이나 죽어나가니 마을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로 뿔 수 밖에 없었다. 게다가 물에 빠져 죽거나, 차에 치여 죽거나, 자다가 갑자기 죽는 등 도대체 원인을 알 수 없는 죽음이 계속 되어서 마을 사람들의 공포는 극에 달했다.

다음 차례는 누가 될지 몰라 전전긍긍하던 마을 사람들은 이 거대한 불행의 원인을 규명해내기 위해 애썼다. 마을 주변을 샅샅이 훑어보던 사람들은 강 건너편의 호랑이가 상처를 입었고, 그로 인해 마을 사람들에게 재앙이 미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다. 물론 이는 실제 호랑이가 아니라 산을 호랑이로 여긴 풍수적 진단이었다.

사람들은 강 건너 월야산(달음산)을 앞드린 호랑이 혹은 잠자는 호랑이로 믿고 살아왔다. 그런데 석산을 개발하면서 호랑이 머리 부분이 깨진 것이었다.

1995년 추석날 마을 사람들은 마을회관 앞에 코끼리 석상 한 쌍을 세웠다. 이후 더 이상 불행하게 죽은 사람은 없었다고 마을 사람들은 믿고 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코끼리를 중간에 내세워 성난 호랑이를 진정시킨 것이다.⁴⁾

〈사례1-3〉은 〈사례1-1〉〈사례1-2〉보다 풍수지리설의 면모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례1-2〉의 경우처럼 ‘과과-재앙-피보/압승’의 구조로 재앙을 해결하고 있으며, 재앙의 발생원인과 재앙의 해소 방법이 모두 풍수지리설에 근거하고 있다. 〈사례1-3〉이 〈사례1-2〉와 달라진 면이 있다면 재앙의 이유와 대처를 풍수지리 물형론에 근거해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2년 동안 마을 주민의 15%가 갑작스럽게 죽게 되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갑자기 죽게 된 이유를 풍수지리설에 의해 설명하고 있다. 〈사례

4) 김두규, 『복을 부르는 풍수 기행』, 동아일보사, 2005. 69-70쪽.

1-1>과 <사례1-2>와 마찬가지로 산을 파괴한 행위가 재앙의 원인이 된다. 그런데 <사례1-3>에서는 산을 파괴한 행위가 재앙을 불러온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다. 중촌 마을 공동체 구성원들은 마을 앞쪽에 있던 월아산을 호랑이가 엮드려 있는 모습으로 믿고 있었다. 그런데 산의 머리를 파괴했기 때문에 화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조산은 머리가 깨져서는 안되고 안산은 얼굴이 깨져서는 안되는데, 월아산은 마을의 조산으로 머리가 깨지면 안되는 것이었다.

마을 재앙의 원인을 풍수지리설에 기대어 찾고 있기 때문에, 그 해결방법 또한 풍수지리설에 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월아산의 머리를 파괴해서 호랑이가 화가 났다고 생각한 중촌 마을에서는 호랑이보다 더 힘이 센 동물을 마을 회관 앞에 배치하기로 한다. 이는 강한 기운을 누른다는 측면에서 비보와 비슷한 압승이라 할 수 있다. 마을 회관 앞에 코끼리 석상을 배치하여 호랑이(월아산)를 진정시키고자 하는 행위는 자연을 살아있는 생명체에 빚대어 생각하는 풍수지리설의 사고 체계를 그대로 수용한 사례이다.

<사례1-4>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황풍리

1980년대의 일이다. 참 많이도 죽었다. 저녁에 본 사람 아침에 못 보고, 아침에 본 사람 저녁에 못 보고 나갔다 돌아오기도 하고, 청년들이 많이 죽었다.

이 마을에 재앙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박정희 정부가 주도한 새마을운동 때부터였다 한다. 새마을 공사를 하면서 원래 있던 두꺼비 탑을 없애버렸는데, 이후 마을에 죽음의 재앙이 드리워지기 시작했다는 것. 지금 보는 두꺼비 석상은 1986년에 세운 것인데, 예전의 두꺼비탑을 복원한 형태라고 한다.

일제 시절인 소화 8년에 일본놈들이 마을 앞으로 흐르는 봉황천에 다리를 놓았다. 그 다리가 지네 형상인데, 지네는 제비와 상극이다. 우리 황풍 마을

은 제비집터 혈(연소혈)이다. 그래서 집들을 평지가 아니라 산으로 올려서 짓는다. 아무튼 일본놈들이 다리를 놓고 나서부터 마을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했다. 지네에 제비 새끼들이 놀란 탓이었다. 그래서 지네와 상극인 두꺼비 석상을 세웠더니 마을은 다시 평온해졌다.⁵⁾

<사례1-4>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야기 전반부는 <사례1-2><사례1-3>과 같이 ‘파괴→재앙→비보/압승’의 구조를 보여준다. 이야기 후반부는 ‘파괴→재앙→비보/압승’의 구조가 약간 변형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이야기 전반부에 탑을 파괴하면서 재앙이 오게 된 풍수지리적인 이유를 설명해준다. 이야기 후반부의 내용이 인(因)이 되어 이야기 전반부의 재앙과 해결이 과(果)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야기 전반부의 내용은 앞서 제시한 진안군 주천면, 진주 중촌마을의 경우와 유사하다. 개발로 인해 풍수지리적 환경이 파괴되고, 그 결과로 마을에 재앙이 오게 된다. 그러나 앞서 제시했던 사례가 산을 파괴한 것임에 비하여 황풍리는 마을의 탑을 파괴한 것으로 규모가 작다고 할 수 있다. 규모가 작은 훼손임에도 마을에 찾아온 재앙은 앞선 사례에 비해 적지 않은 피해를 가져왔다. 그 이유를 이야기 후반부에 설명하고 있다. 이야기 후반부에 설명하는 황풍리 마을탑의 유래는 연소혈의 마을을 지키기 위해 건립된 마을 비보탑이었다. 마을을 수호하는 탑을 개발 논리에 의해 파괴했으니, 재앙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탑을 복원하는 것으로 재앙을 해결할 수 있었다.

이야기 전반부에 진행되는 마을 재앙담은 풍수적 인식이나 내용을 직접적으로 담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야기 전반부의 사건이 발생되고 해결되는 논리를 제공해주는 후반부의 이야기는 풍수지리설의 사유체계 속

5) 김두규, 『복을 부르는 풍수기행』, 동아일보사, 2005. 2쪽.

에서 전개된다. 이야기 후반부에 소개되는 풍수적 상상은 3가지가 나타난다.

- ① 마을이 제비집터 혈(연소혈)이다.
- ② 황풍교는 지네 형상이다.
- ③ 마을담은 두꺼비 형상이다.

먼저 마을 공동체 구성원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공간을 풍수적으로 인식하여 장소화하고 있다. 주민들에게 황풍리 공간은 연소혈로 상상되는 길(吉)한 장소가 된다. 그러나 일본은 마을 앞에 제비와 상극인 지네 형상의 다리를 놓아 황풍리를 흉(凶)한 장소로 바꾸게 된다. 이후 마을 사람들이 죽는 재앙이 발생하고, 황풍 마을 사람들은 지네와 상극인 두꺼비 형상의 마을담을 세워 마을을 지키게 된다. 마을 공간을 인식하는 장소화 과정에서부터 풍수지리의 물형론에 의지하고 있으며, 재앙의 발생과 해결 과정이 모두 풍수지리 물형론의 논리에 의해 전개되고 있다. 이는 자연을 살아 있는 생명체로 상상하는 지역 공동체의 풍수적 상상력에 의한 것이다.

남일면 황풍리의 마을 재앙담에 나타나는 풍수지리설은 그들의 자연관 뿐 아니라, 마을 주민의 저항 정신도 같이 보여주고 있다. 마을 앞 황풍교는 애국계몽기 일본에 의해 건설된 것이다. 일본에 의해 건설된 다리 때문에 마을에 재앙이 찾아 온고, 마을 공동체의 힘을 모아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 황풍리 마을담을 쌓게 된 것이다. 이는 환경에 의해 지배되고, 환경에 순응하며 살 것을 말하는 풍수지리설과는 다른 저항의 풍수가 된다.

〈사례1-5〉 경상남도 거제군 오수리

거제구읍에서 오수리로 가는 길가에 독뢰가 있다. 거기에 옛날 번부사의

자당 묘를 쓰고 난 후 쥐가 많이 끌여 쥐독메라 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주민이 고양이 비석을 세웠더니 쥐가 없어졌다. 거기를 괴비석 거리라고 하는데, 변씨가 조상 무덤에 해롭다고 괴비석을 깨어 없애 버렸다고 한다.⁶⁾

거제군 오수리의 사례는 양반의 명당차지로 마을에 재앙이 발생한 경우이다. 이때 발생한 재앙은 해수(害獸)의 침탈로, 쥐가 들끓는 것은 백성의 식량이 해로운 동물에 의해 부족해짐을 의미한다. <사례1-5>의 재앙 발생 원인은 양반이 마을에 해롭고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자리에 묘를 썼기 때문이다. 마을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풍수로 인한 재앙을 비보풍수로 막고 있다. 고양이 모양의 비석을 세우는 것은 생명체로 형상화된 조형물의 상극 관계를 활용한 비보풍수에 해당한다. 그러나 양반이 비석을 깨뜨리면서 마을의 재앙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게 되었다. 금산군 황풍리의 <사례1-4>에서는 일본과 우리민족의 대응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저항의 풍수였다면, 거제군 오수리의 <사례1-5>는 반상의 대립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저항의 풍수이다.

〈사례1-6〉 강원도 양양 남대천 상운리

강원도 양양 남대천에 무산 12봉이 있었다. 송강 정철이 강원 감사가 되어 이곳에 있을 때 양양에서 인물이 많이 난다고 무산 12봉에다 쇠말뚝을 박고 소금독을 묻었다. 그 후로 양양에 인재가 귀하였다.

송강이 또 양양의 상운리로 짐승을 먹으로 가서 보니 상운리 사람들은 모두 부자로 살고 있었다. 송강은 짐승을 먹으면서 상운리의 지형을 찬찬히 훑어보았다. 그러자 맞은편 여운포에 누룩비위가 눈에 들어왔다. 바로 그 비위의 정기로 상운리가 부자가 된 것이었다. 송강은 누룩비위를 깨뜨려 산의 기를 흩어버렸다.⁷⁾

6) 경남 거제군 거제면 남동리, 하소열, 남, 74세. 『구비문학대계』8-2, 405쪽.

〈사례1-7〉 전라도 떡곡재

전라도의 떡곡재는 풍양과 고흥의 경계지역이다. 그 떡곡재는 원래 지리상으로 보아 고흥에서 뚫어 나올 만한 도로가 아니고, 바닷가로 돌아서 도로를 내야 된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보니 고흥의 지형이 인제가 많아 나오게 생긴지라 고흥에서 떡곡재를 뚫어버렸다.

그 떡곡재를 파다 보니 검은 피가 쏟아져 나왔다. 검은피(떡피)가 나왔다고 하여 지명도 떡곡재가 되었는데 그 후 이곳에서는 인제가 안 나오고 이사를 가려면 떡곡재를 피해서 가라는 말도 생겨났다.⁸⁾

양양과 떡곡재의 사례는 단맥담의 속성을 지닌 마을 재앙담이다. <사례1-6>은 송강 정철이 산의 정기를 끊어 양양에 인제가 귀하게 되고 부자가 나지 않는 재앙이 오게 되었다. 단맥에 의해 마을에 재앙이 닥치는 이야기는 <사례1-7>에서 보듯 일본에 의한 경우가 많다. 애국계몽기 일본이 우리 민족의 정기를 끊고자 산에 쇠말뚝을 박거나 철도와 건물을 세우는 데 있어 풍수를 이용했다는 이야기는 널리 퍼져있다. 그리고 각 지의 고개와 도로 등을 증거의 현장으로 대고 있다. 이 외에 명나라 이여송이 임진왜란 이후 조선의 맥을 끊었다는 이야기도 널리 회자되고 있다. 단맥담은 대부분 국가와 민족의 재앙이나 <사례1-6>과 <사례1-7>은 마을 단위의 재앙을 내용으로 한다.

2)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마을의 재앙

두 번째 이야기군은 전술한 이야기와는 다른 풍수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앞서 제시한 이야기군이 자연의 개발 혹은 파괴로 풍수적 환경이 변화되어 재앙이 도래한 반면, 지금부터 제시할 이야기군은 풍수적 환경의

7) 신월균, 『풍수설화』, 밀알, 1994. 172쪽

8) 신월균, 『풍수설화』, 밀알, 1994. 173쪽

변화가 없는 속에서 발생한 재앙의 원인으로 마을의 풍수적 환경이 좋지 않았었다고 마을 주민들이 생각하게 된 사례답이 주를 이루게 된다.

〈사례2-1〉 포항 송라면 중리 마을

마을 운이 사납던지 1980년대 중반 젊은이들이 줄줄이 죽어나갔다. 젊은 아들만 많이 죽은 것이 아니라 동네 운도 안 좋아 여러 가지 불행한 사건들이 많았다. 그러던 중 누군가가 '동네 터가 뱀혈인데 뱀이 동네를 해롭게 하니, 뱀을 제압하는 돼지 석상을 세우라'라는 말을 듣고 돼지 석상을 세우게 되었다. 처음에는 작은 돼지 한 마리를 세웠다가, 나중에 더 큰 돼지 한 마리를 세웠다. 그 때가 1996년이였다. 돼지를 세우고 나서 마을이 안정되었다.⁹⁾

중리 마을 역시 사람이 연이어 죽는 재앙으로 나타난다. 중리 마을에서는 재앙의 원인으로 마을 형국이 좋지 않음을 들고 있다. 역시 풍수 물형론의 논리에 의한 설명이다. <사례2-1>은 '재앙-압승'의 구조로, 마을 공동체의 재앙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례1-2><사례1-3><사례1-4>에서와 마찬가지로 풍수지리 상징물을 건립하게 된다. 이때 세우게 되는 조형물은 자연을 동물로 상상하고, 상극하는 관계망 속에서 조형물의 형상이 결정된다. 자연을 동물로 상상하고 바라보는 마을 공동체의 경관인식을 보여주는 <사례1-3><사례1-4><사례2-1>과는 달리, <사례1-2>는 풍수지리설에 의한 장풍 보국을 보완해주고 있다.

〈사례2-2〉 남원시 수지면 고정마을

남원시 수지면 고정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건두산에 성질 사나운 들개들이 수십 마리에서 수백 마리씩 떼지어 살면서 사람과 가축을 해쳤

9) 김두규, 『문화유산 속의 풍수사상』, 『오늘의 동양사상 8』, 예문동양사상연구원, 2003. 104쪽.

고, 또 이놈들이 일시에 소리를 지르면 무서운 재앙이 생겼다고 한다. 이러한 재앙을 막기 위해 광한루와 수지면 고정마을에 호랑이 석상을 세워 견두산을 바라보게 했는데, 이후 들개 떼의 재앙이 사라졌다.¹⁰⁾

견두산이 원래 호락산이다. 남원이 개터인데 호락산이 남원을 보고 있었다. 그때에는 원님이 와 가지고 석달도 못 있었다. 원님이 광한루 안에서 산세를 보니, 호락산 때문에 남원이 밥을 못 먹는다고 견두산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그리고 광한루 곁에다 호랑이를 만들어 갖다놓고 방위했다.¹¹⁾

<사례2-2>는 <사례2-1>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행위 개입 없이 재앙이 발생한 사례이다. 앞선 사례들이 인간의 파괴에서 온 재앙임에 비해 <사례2-1>과 <사례2-2>는 저절로 찾아온 재앙이다. 그리고 그 재앙의 이유는 풍수지리적 사고에 의해 분석된다. <사례2-1>이 마을 형국에 의해 발생한 문제 상황이라면 <사례2-2>는 풍수적 경관의 주요 요소인 산형에 의해 발생한 문제 상황이다. 두 경우 모두 풍수지리 물혈론의 관점에서 발생한 재앙이다.

남원 남동쪽 30리 거리에 있는 견두산¹²⁾은 사납고 굽주린 개의 형상으로 남원을 노려보는 모습이다. 험한 산세는 산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하게 된다.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대비책으로 호랑이 석상을 세우게 된 것이다. 견두산의 기운을 누르는 데는 풍수지리설의 논리가 개입돼 있는 것이다.

다른 버전의 이야기는 견두산의 원명이 호락산(호랑이산)이었는데, 산의 이름을 견두산으로 바꾸어 기운을 눌렀다고 전승하고 있다. 지명전설의 속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명칭비보담은 우리나라 곳곳에서 전하고 있

10) 김두규, 『복을 부르는 풍수기행』, 동아일보사, 2005. 14쪽.

11) 전라북도 남원군 송동면 연평리, 이태곤, 남 66세. 『구비문학대계』5-1, 292-293쪽.

12) 犬頭山:개머리산 :790m

다. 남원은 명칭 비보로 마을의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역시 풍수지리 물형론의 논리가 개입되어 생성된 이야기다.

〈사례2-3〉 청주 우암산

옛날 우암산에 한 석수장이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에 노인이 나타나 한 곳을 가르키며 “당장 이곳의 혈을 끊어야 되느니라”고 경계하였다. 그러나 석수장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런 후로 청주인근에 괴질이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거나 죽어갔다. 석수장도 괴질을 피하기 위하여 고향을 떠나기로 마음 먹었다.

그날 밤 석수장의 꿈에 노인이 다시 나타나 “우암산의 모퉁이에 소의 고삐처럼 생긴 돌이 있을 테니 그것을 찾아 반듯이 끊어야한다”고 지시하였다.

이에 그곳을 찾아 노인이 시키는 대로 고삐 모양의 돌을 끊으니 천둥과 번개가 치는 가운데 한 마리의 여우가 몹시 괴로워하였다. 한 참 후에 정신의 차리고 살펴보니 여우의 꼬리가 잘려 있었다. 이후로 청주의 괴질은 사라졌다.¹³⁾

죽음과 더불어 과거 마을 공동체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질병이었다. 특히 전염병은 마을 집단의 죽음과 결부되어있기 때문에 마을의 무서운 재앙이 된다. <사례2-3>에서 발생한 청주의 재앙은 괴질이다. 괴질로 병 들고 심지어 죽음도 발생한다. <사례2-3>에서 괴질의 원인으로 우암산의 정기를 누르고 있는 여우의 소행을 들고 있다. 청주 재앙담의 원인은 풍수지리 물형론의 사유를 통해 판단되고 있다. 우암산을 소의 형상으로 파악하고, 형국의 약점을 파괴하는 비보를 통해 재앙을 막아내고 있다.

13) 예경희, 「청주 우암산의 풍수지리적 고찰」, 『청대학술논집』5, 청주대학교 학술연구소, 2005. 240쪽

〈사례2-4〉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두악산

단양읍 상방리, 대잡리, 북상리, 북하리의 경계에 있는 두악산은 화산(火山)이어서, 그 영향으로 잿간(단양읍 하방리 소전거리 북쪽 마을)에 불이 잘 났다.

지사들은 단양이란 단(丹)과 양이 별씨 양이고, 두악산은 화산이고 하니 불이 안 날 수가 없다고 했다. 두악산에 연못을 파고 소금동이를 넣어 음양을 상쇄하여 불이 나지 않게 하였다.

그리고 소금독에 물을 부어야 소원성취하고 어린애를 낳는다는 말을 퍼뜨려 소금독에 물이 마르지 않게 유지했다. 지금도 그 곳에서 기우제를 지낸다.¹⁴⁾

소방시설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화재는 질병과 더불어 죽음 혹은 폐가에 직결되는 무서운 재앙이었다. 때문에 화기 비보는 마을 공동체의 안위를 위협하는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마을 공동체의 풍수적 전략이었다. 단양 두악산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화기비보는 대전 장안동 화태산, 함평 옷뱌골재 등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마을 신앙의 속성을 함께 지니며 오늘날 까지 이어지는 민속행위다. 대체로 화재의 원인을 진단할 때 오행으로 풍수적 진단을 한다. 마을에 화성사(火星沙)가 보일 때 화재가 잦을 것을 판단한다. 화성사는 산형이 높고 뾰족하게 솟은 경우 나쁜 기운이 강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산형이 불화(火)자와 비슷하다는 유감주술의 속성이 강한 풍수지리 형기론이다. 화기비보는 <사례 2-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못을 파거나 물독을 산에 묻어 오행의 상극관계를 활용하게 된다. 또는 화기를 진압할 수 있는 신이한 동물상을 배치하기도 한다.

14) 단양읍 중방리, 조성구, 남, 68세. 『구비문학대계』3-3, 48-50쪽.

〈사례2-5〉 강원도 양양군 조산마을

강원도 양양에 조산마을이라는 곳이 있다. 옛날부터 인심 후하고 농사도 잘 되어 넉넉히 살았으나 큰 인물이 나지 않았다.

하루는 정자나무 아래서 노인들이 장기를 두고 있는데 금강산에서 왔다는 노승이 마을을 두루 살펴보고 다니는 게 보였다. 웬일인가 하여 그 이유를 묻자 노승은 “지세가 하도 좋아 살피고 다녔는데 먹고 살기는 걱정이 없겠으나 인물은 나질 않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점이 마을의 유일한 걱정거리였으므로 노인들은 어떻게 하면 인재를 배출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노승은 설악산의 주맥이 이 마을에 와서 끊겼으니 인력으로라도 산 하나를 만들어 그 맥을 이어가면 설악산의 정기를 받을 것이라고 하였다. 마을에서는 모두 힘을 모아 인공적으로 산을 만들었더니 그 뒤로 인재가 많이 나왔다. 그 후로 마을 이름도 조산마을이 되었다.¹⁵⁾

풍수지리에서는 안정되고 편안한 땅을 찾는다. 어머니의 품에 안긴 듯 아늑한 곳을 소위 명당¹⁶⁾이라고 한다. 산이 마을 뒤를 병풍처럼 둘러 배산임수를 이루고, 마을 앞의 명당과 물을 건너 안산과 조산이 아름답게 있어 아늑하게 품에 안겨있는 느낌을 주는 곳이 풍수적으로 좋은 마을이다. 때문에 물이 빠져나가는 수구가 넓으면 허한 느낌을 주어 좋지 않다. 이때 수구막이를 하게 된다. 수구막이는 마을 숲이나 조산, 조탑을 통해 이루어진다.

마을 유래담의 속성을 지닌 <사례2-5>는 마을에 특별한 재앙은 없었으나, 마을에 인재가 나지 않는 고민이 있었다. 때문에 인공적으로 산을 만드는 것을 통해 풍수적으로 허한 곳을 보완하여 완벽한 길지를 만들었다.

15) 신월균, 『풍수설화』, 밀알 1994. 181쪽 / 양양읍 군향리 김종극 남 77세 『구비문화대계』2-5, 180-181쪽

16) 풍수지리설에서 말하는 명당은 혈치를 감싸고 있는 보국내의 영역을 말한다.

3. 마을 재앙과 민중의 풍수적 대응

1) 마을 재앙의 원인이 되는 풍수

어느 특정한 시기 특정인에 의해 환경의 변화가 생기고, 변화된 풍수적 요건으로 인해 발생한 재앙 사례를 이야기 한 것이 <사례1-1>부터 <사례1-7>이 된다. 반면 <2-1>에서 <2-5>까지의 사례는 마을에 불행한 일이 발생한 후에 마을 재앙의 원인으로 풍수적 환경이 좋지 않았다고 지적하게 되는 것이다.

환경의 변화로 인한 마을 재앙담 사례는 제각기 돌산 개발, 도로 공사, 깨진 바위, 다리 건설 등 개발의 논리에 의한 환경 변화가 불행을 초래하게 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러한 풍수적 환경변화는 명당 국세에 형성된 기의 흐름을 바꾸게 되어 대체로 나쁘게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개가 낮아지고 길이 나게 되면 기가 흐르는 새로운 통로가 더 생기게 되고, 자연히 명당의 생기는 흠어지게 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면만을 본다면 개발과 보존의 논리에서 풍수는 개발 보다는 보존의 논리에 가까운 편이다. 길이 생겨 설기되는 것을 막으려 노력했던 예는 왕실 풍수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세조는 최양선이 제기한 현릉의 단막논쟁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모산과 구룡산 고갯길에 박석을 깔아 고갯길이 패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사례1-1>에서 <사례1-7>은 이러한 환경의 변화로 인해 야기된 마을의 재앙을 풍수적 논리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중 <사례1-1>에서 <사례1-3>은 개발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풍수적 재앙이 발생한 사례가 되고, <사례1-11>과 <사례1-12>는 풍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악의를 품고 풍수적 해악을 끼침 사례가 된다. <사례1-4>와 <사례1-5>는 개발과 악의적 의도가 동시에 나타나는 사례가 된다. 대부분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풍수적 환경의 변화로 인한 재앙담의 경우 재앙이

발생한 원인을 풍수에서 찾게 된다. 그러나 악의적인 환경 파괴로 인한 재앙은 풍수적 환경 변화를 염두에 두고 파괴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파괴의 심약 여부는 풍수지리설에 의지하게 된다. 풍수지리설에 의해 생명력을 부여받은 자연은 인간의 파괴에 신음하게 된다. <사례 1-1>과 <사례1-2>에서는 인간의 개발에 상처받은 자연이 응징을 하려는 이야기다. <사례1-3>에서는 인간의 자연 파괴를 풍수지리 물형론에 비추어 보며 머리에 상처를 입은 자연이 보복을 한다. 이처럼 풍수지리설의 관점에서 바라본 자연은 아끼고 가꾸어야할 대상이 된다. 자연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진행되는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개발행위는 자연에 상처를 남기게 된다. 그리고 상처를 입은 자연은 인간에게 다시 재앙을 준다.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마을 재앙담은 환경의 변화로 인한 마을 재앙담 사례에 비해 재앙의 강도가 약하고 집단이기 보다는 마을 공동체 구성원들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사례 2-1>에서 <사례 2-5>는 이미 마을에 형성된 풍수적 환경 속에서 살던 공동체에 닥친 재앙의 원인을 풍수 사상을 이용해 자연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재앙이 발생한 후에 마을의 풍수적 여건이 좋지 않아 마을에 재앙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두 사례 모두 마을 재앙의 원인을 풍수에서 찾고 있으며, 그 바탕에는 자연이 신비로운 힘을 지닌 경이로운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거나 무차별적인 개발을 하게 되면, 자연은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응징을 한다. 마을 공동체는 죽음, 질병과 같은 재앙을 마주하며 한없이 무력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 <사례1-2>에서 보인 진안군 주천면의 마을 재앙담은 인간의 개발로 인해 마을 청년의 집단 사망이라는 거대한 재앙을 경험한 이야기다. <사례1-1>과 <사례1-3>도 자연

이 인간을 응징할 수 있는 신비로운 힘을 지닌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다.

자연은 인간을 응징하는 것만으로 그 힘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좋은 여건이 갖추어 졌을때는 인간을 이롭게 해주기도 한다. 소위 명당기운의 발복으로 <사례2-5>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례1-6>과 <사례1-7>은 명당의 파괴로 발복이 멈추어진 것이지만, 명당이 파괴되기 이전에는 자연이 인간을 이롭게 하는 힘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자연의 힘은 풍수지리설의 논리에 의해 존재하게 된다. <사례 1-2>에서 처럼 마을의 고개를 끊거나, <사례1-1>에서 처럼 산을 파괴하는 행위는 사신사에 의해 갈무리되던 기운을 설기시키게 된다. 설기하게 된다는 것은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길지가 흉지로 변하게 된 것이다. 풍수의 논리에 의해 흉지가 된 자연은 인간을 응징하게 된다. 인간과 자연의 힘이 조우하며 마을 재앙담이 생성되는 것이다.

2) 마을 재앙을 해결하는 풍수

풍수지리설이 세인의 지탄을 받는 이유는 현실의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행복추구는 당연한 권리이다. 보통의 풍수담은 개인의 발복에 관심을 갖기 마련이다. 그러나 마을 재앙담에서의 풍수지리설은 개인의 발복 보다는 집단의 안위에 관심을 두게 된다. 마을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직면한 재앙을 극복하는 방편으로 풍수지리설이 활용되는 것이다.

<사례1-1><사례1-2><사례1-3><사례1-4><사례2-1>은 마을 사람들의 연속된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 풍수지리설이 활용되었다. <사례2-2><사례 1-5>는 해로운 동물에 의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풍수지리설을 활용하고 있다. <사례2-3>은 신체적 장애, 질병을 극복하기 위해 풍수지리설을 활

용하고 있다. <사례2-4>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풍수지리설을 활용하고 있고, <사례2-5>는 보다 완벽한 길지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풍수지리설을 활용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사례1-6>과 <사례1-7>은 마을에 재앙을 가져오게 되는 과정으로 풍수지리설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사례1-4>와 <사례 10>에서 볼 수 있듯이 부당한 지배에 대한 저항의 수단으로 풍수지리설이 활용될 수도 있다. 마을 재앙담에 나타나는 풍수지리설의 활용은 공동체 앞에 당면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 행복한 현실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집단의 소망이 담기게 된다.

이처럼 풍수는 마을 공동체의 재앙을 극복하는 방식으로 자연에 신비로운 힘을 부여한다. 그리고 자연은 풍수가 부여한 신비로운 힘으로 마을 구성원을 보호하고 감싸며 재앙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준다. 마을 공동체에 있어 풍수는 마을 재앙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마을의 재앙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도 한다.

4. 마을 재앙담에 나타난 풍수사상의 의의

1) 신분을 초월한 보편적인 세계관으로서의 풍수

풍수라고 하면 오랜 시간을 들여 공부를 한 지관이 나경을 들고 양반택 못자리의 길흉화복을 점치는 어려운 학문으로 생각하기 쉽다. 또, 풍수가 양반 가문의 세도와 권력자의 정치적 목적에 악용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풍수의 이미지는 풍수지리학이 민중과는 유리되어 서민의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마을 재앙담에서는 양반의 풍수와 양상이 다른 민중의 풍수가 나타나고 있다.

문벌의식이나 가문의식을 내세우기 어려웠던 민중에게 음택풍수는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다만 아버지의 못자리를 잘 쓰게 되어 부자가 되었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있을 뿐이다. 양반의 음택풍수담은 가문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실제 못자리 풍수를 이용해 세도를 부리는 등 양반의 삶과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반면 민중에게 있어 음택풍수는 '누가 부자가 되었다고 하더라'하는 정도로 이야기 되는 꿈만 같은 이야기이다. 양택풍수의 경우에 지관을 불러 복지를 골라 양택 가상학에 맞게 배치된 집을 지어 사는 것은 양반의 일상적인 주거 생활이 된다. 그러나 민중의 양택풍수는 개인의 집에 국한되지 않는다. 민중의 양택풍수는 공동체가 자리 잡고 사는 마을의 입지 조건과 관련지어 이야기 된다.

이처럼 민중의 풍수는 개인과 가문의 영역에서 존재하기 보다는 보다 큰 사회적 집단의 영역을 대상으로 존재한다. 민중의 풍수는 마을 공동체의 문제와 마을 공동체 구성원의 삶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양반이 이해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풍수를 받아들이고 있는 민중의 풍수는 양반의 그것과 다르다. 풍수지리적 세계관은 신분을 초월하여 공유하고 있되 그 수용의 방식이 다른 것이다. <사례1-5>가 양측의 풍수에 대한 입장이 모두 드러난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양반은 가문을 위해 음택 풍수를 활용하고, 민중은 마을에 닥친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마을 규모의 양택 풍수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

2) 자연에 역동적인 생명력을 부여하는 풍수

자연, 특히 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 변함없이 존재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자연을 의물/의인하여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이 풍수지리 물형론이다. 풍수지리 물형론은 풍수이론에서 강조하는 내용 보다는, 마을 주민 집단의 일

상생활과 관련된 주변 사물들에 비유하여 그 소용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다. <사례1-3><사례1-4><사례1-5><사례2-1><사례2-2><사례2-3><사례2-4>에서 자연은 호랑이, 소, 제비 등 생명력을 갖는 존재에 비유된다.

마을 재앙담은 풍수지리 물형론에 의해 부동의 자연을 역동적인 생명체로 바꾸어 놓게 된다. <사례2-3>에 나타나는 청주 우암산은 소의 형상에 비유된다. 그리고 특정 형상의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산이 아파하고 고삐를 풀고 싶어하는 등 역동적인 생명력이 부여된다. <사례1-3>과 <사례2-2>는 단순히 호랑이나 개의 형상을 닮은 산이 아니라, 인간의 파괴에 대해 아파하고 응징을 가하는 생명력을 부여 받고 있다.

이처럼 풍수지리설은 자연을 살아있는 생명체로 바라보고, 역동적인 생명력을 부여하고 있다. 때문에 풍수지리설은 마을 재앙담이 형성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마을 재앙의 극복 방안을 알려주기도 한다. 환경의 변화로 인한 마을의 재앙은 생명체로서의 환경을 파괴하고 위협하는 인간에 대한 자연의 응징이 된다. 그리고 마을 공동체 구성원은 자연을 살아있는 생명체로 인식하고 생물을 달래거나 위협하는 방식으로 재앙을 극복하고 있다. <사례1-3>과 <사례1-4>는 자연에 생명력을 부여한 뒤, 상극을 활용하여 재앙을 제압하고 있다. 이러한 마을 재앙 극복담은 자연을 살아있는 생명체로 바라보는 풍수지리설의 사고에 기반하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마을의 재앙사례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의 발현으로 인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사례2-1>은 마을 공동체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뱀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정적인 자연에 역동적인 힘을 부여하고 있다. <사례2-2>와 <사례2-3>도 호랑이와 소로 형상화해서 산과 사람들이 살아가는 터전이 힘겨루기를 하는 역동적인 생명력을 풍수적 사고를 바탕으로 보여준다.

5. 결론

마을 재앙담의 여러 속성 중 풍수지리설이 두드러진 사례를 모아 풍수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마을 재앙담은 그간 단맥담, 패배형 전설, 파석 모티프, 비보풍수담 등 여러 연구 영역에서 다루어지던 풍수담 중에서 마을 공동체에 해악을 미치는 이야기를 뽑아 모아 본 것이다. 때문에 개별 이야기 사이의 편폭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마을의 집단 죽음, 질병, 화재, 해로운 동물의 침탈 등은 그 위험정도가 크고 직접적인 재앙이다. 마을에 인재가 나지 않는다는 점은 결핍이나 부족 상황 정도로 볼 수 있겠으나, 재앙의 의미를 보다 확장한다면 행복하지 못한 상황도 재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마을 재앙은 풍수지리설을 활용해 극복하게 된다. 반면, 단맥 등의 풍수적인 방법으로 재앙을 맞이하게 된 이야기에서는 마을 재앙의 원인을 풍수지리설에 의해 진단되었음을 감안해 마을 재앙담에 포함시켜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마을 재앙담을 인간이 풍수적 환경 변화를 주도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나누어 풍수사상이 반영된 양상을 살펴보았다.

마을 재앙담은 마을 공동체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 풍수지리설을 활용하게 된다. 그러나 마을 재앙담에 나타나는 풍수지리설은 지사들이 행하는 풍수지리 이론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 <사례2-4>의 화재 원인 진단은 지사들의 풍수지리 술법과 일치한다. 그러나 그 해결과정은 실제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것이 사실이다. <사례1-2>나 <사례1-3><사례1-4>에 나타나는 비보/압승의 경우는 실제 지사들이 사용하는 풍수지리 술법이라기보다는, 풍수 술법을 정확히 모르는 민간에 유포되는 풍수관이 활용된 사례이다. 다른 사례의 경우도 대부분 풍수지리 전문가들의 풍수 술법을 통해 마을 재앙을 극복하기 보다는 민간에 유포되는 풍수관념을 활용

한 이야기인 경우가 많다.

마을 재앙담에 나타난 풍수사상은 민간의 풍수관념이 많이 반영되어있다. 때문에 마을 재앙담의 풍수사상은 지가서에서 볼 수 있는 풍수사상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여준다. 또 음택풍수를 중심으로 한 양반의 풍수와도 다른 민중 풍수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마을 재앙담에서 볼 수 있는 풍수사상은 자연을 신비로운 힘을 가진 존재로 바라보며, 풍수지리설을 이용해 자연에 역동적인 생명력을 부가해 준다. 그리고 생명을 얻은 자연은 다치기 쉬운 연약한 존재로 인식된다. 이는 인간을 품어주는 땅의 이미지와는 반대되는 보호받아야 할 땅의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

참고문헌

- 강중탁, 『한국문학과 풍수설』, 백문사, 1988. 1-310쪽.
- 권선정, 『풍수로 금산을 읽는다』, 금산문화원, 2004. 1-447쪽.
- 김두규, 『우리땅 우리 풍수』, 동학사, 1998. 1-422쪽.
- _____, 「문화 유산 속의 풍수 사상」, 『오늘의 동양사상』8, 예문 동양사상 연구원, 2003. 102-115쪽.
- _____, 『복을 부르는 풍수기행』, 동아일보사, 2005. 1-334쪽
- 신월균, 『풍수설화』, 밀알 1994. 1-227쪽
- 심민호, 「지명유래담에 나타난 풍수지리적 사고」, 『민속학연구』17, 국립민속박물관, 2005. 21-44쪽.
- _____, 「〈명당을 흠친 딸〉설화의 형성 배경에 관한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1,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5. 301-330쪽
- 예경희, 「청주 우암산의 풍수지리적 고찰」, 『청대학술논집』5, 청주대학교 학술연구소, 2005. 209-251쪽.
- 이동길, 『풍수재해지역에 대한 풍수지리적 분석』,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1-55쪽.

ABSTRACT

Fengshuijiri as Revealed Through the Folktales of a Village Disaster

Shim, Min-Ho

In general, the concerns of a village community are usually talked about extensively. A disaster, for example, within a village community becomes an important issue which focuses the concerns of the said community. Therefore, it becomes the central talking point of a particular community affected by a disaster. A folktale, regarding a village disaster, is usually about the events surrounding the said disaster which affected the destiny of the community and the countermeasures implemented to cope with it. Regarding these kinds of disasters, whether they are personal or community based, the members of a village community usually point out that most causes are due to topographic changes or poor topographic surroundings.

Whereas a village disaster folktale due to an environmental change usually attributes its disastrous result to an exploitation or destruction of the regionally changing topographic environment, in a village disaster folktale due to poor topographic surroundings, on the other hand, villagers usually charge an originally poor regional topography with the disastrous outcome.

In a village disaster folktale, due to an environmental change, the reason for such a misfortune is frequently attributed to economic-related interests such as the development of a quarry, road-works, breaking up a rock surface, a bridge construction and so on. These kinds of developments have negative influences which affect the energy flows formed at a propitious site. A disaster folktale, due to a topographic change, related to a development process demonstrates a Fengshuijiri change: a theory regarding a divination based on topography. However, a disaster caused by an ill-intentioned environmental destruction is

committed by someone with the topographic change in mind. In comparison to this, a disaster folktale with a reference to poor topographic surroundings has a tendency in that the degree of the disaster is comparatively less or the said disaster affects the members of a community individually rather than the community as a whole. Nevertheless, in both cases these types of disasters, regarding a community, are revealed by the Fengshuijiri changes.

While most Fengshuijiri folktales focus on an individuals' fortune, those regarding a village disaster focus more on the security aspects of a community than an individuals' fortune. Therefore, the Fengshuijiri theory is usually applied to overcome a disaster which community members are facing. It shows the community members' desire that they get over the facing difficulties and live a happy life. As a result, the Fengshuijiri theory can reveal the cause of a disaster and lead the community members to select and implement the appropriate countermeasures to overcome the said disaster at the same time.

Key Words Fengshuijiri : a theory regarding a divination based on topography, Disaster, Folktales, Myungdang : a propitious site, Environmental destruction, Village community

논문투고일 : 2006. 5. 15

심사완료일 : 2006. 5. 29

게재확정일 : 2006. 6. 12